



GIST 동문·발전재단, 발전기금 기탁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총동문 골프동호회와 (재)지스트발전재단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탁식은 지난 19일 GTMBA 골프동호회 체육대회 행사 중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성호 GIST 연구부총장, 김재관 GIST아카데미 원장, 김해명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 김재문 GTMBA 총동문 골프동호회장, 박정순 GTMBA 총동문화 및 김운섭 제7대 총동문화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GTMBA 총동문 골프동호회는 GIST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김해명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도 현장에서 500만원의 기부를 약정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대-목포해양대, 학생상담 연구 맞손

광주대학교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는 최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학생상담의 연구·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위기 지원체계 및 안전망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심리교육 및 상담, 심리치료, 마음건강 활동, 자문 등 전문 영역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용희 광주대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장은 “대학간 교류를 통해 보다 나은 심리 안전체계를 유지하고 지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기초학력교사 ‘성장의 날’

전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전담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장의 날’을 운영하며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장의 날’은 기초학력전담교사들이 매월 모여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전략을 나누는 교사 주도의 학습공동체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결성된 이 모임은 지난 4월 온라인 협의를 시작으로, 7개 권역에서 나누어 운영된다.

기초학력전담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고, ‘성장의 날’ 대면 모임에서 해결점과 지원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목포대성초에서 이뤄진 성장의 날에는 △반아울림이 있는 덧셈, 반아내림이 있는 뺄셈의 효과적 지도 방법 △이중모음이 있는 받침글자 합성 등 구체적인 사례를 주제로 각자의 지도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 환경 조성 방안 등도 공유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 경험이 결국 학생의 성장을 이끈다”며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적극 지원해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저소득 위기가정 후원금 전달

월드비전에 300만원 전달 “위기 아동에 울타리 될 것”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경제적 위기에 놓인 지역 아동들을 돕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부원장, 이에경 간호부장을 비롯해 월드비전 정병원 광주전남사업본부장, 관봉민 복지사업팀장, 최민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2023년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사회복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위기 가정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병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 위기 아동들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원 본부장은 “한 아이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지역사회와 병원의 협력이 큰 힘이 된다”며 “전달된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은 월드비전과 함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경제적 위기에 놓인 지역아동을 돕기 위해 월드비전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지역 내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확대와 의료지원 사업을 지속해나가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남부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간담회

광주남부경찰서는 최근 본서 소회의실에서 녹색어머니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통한 선제적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녹색어머니회와 협조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종득 남부서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유공 회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굣길 교통지도와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시체육회, 경북 산불피해 성금 전달

광주시체육회가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2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광주시체육회 임직원과 종

목단체 회원 등 광주 체육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귀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산불 피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를 위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광주 체육인들의 정성이 산불 피해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기업탐방 진행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학과장 박장순)가 최근 취창업지원센터 기업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완도군 소재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 방문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스킨, 로션, 미백화장품, 핸드크림, 모발화장품까지 해조류 화장품

을 개발·연구하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오정선 미용예술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용 인재상 설립과 역량있는 글로벌 미용인 양성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전남영농학생축제 성황...농업교육 방향 제시

전남영농학생축제가 최근 전남생명과학교등학교에서 ‘기후위기를 넘는 힘,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을 주제로 열렸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교육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새로운 농업 교육의 방향 제시와 농생명 분야 우수 인재 육성 및 지도·협동·과학성 제고를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축제에는 전남 지역 9개교 농업계 학교 계열 학생들 246명이 참여해 △전공경진 6종목 △실무능력경진 6종목 △과제이수

발표 5종목 △글로벌리더십 △FFK골든벨 △FFK예술제 등 20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71명은 오는 9월 16~18일 충북 일원에서 열리는 ‘2025 FFK충북대회’에 전남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변화하는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FFK회원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농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 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류종필)는 22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부터 임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복숭아나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작업에 임했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주는 “요즘 일손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농협은행 임직원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류종필 본부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공익적 역할을 실천하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조선이공대, 주남마을서 참배·봉사활동

조선이공대학교는 광주 주남마을에서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선이공대 교직원들은 위령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아픔을 나누고 연대의 뜻을 실천했다.